

## 미국 ‘솔루션저널리즘네트워크’ “해결책을 말하자 독자가 돌아왔다”

이상현 /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분석팀 차장

최근 미국 언론계에서는 ‘솔루션 저널리즘’이 주목 받고 있다. 솔루션 저널리즘은 ‘문제점뿐 아니라 해결방법까지 함께 제시하는 보도’ 방식이다. 최신 디지털 기술도 아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아닌, 보도 관점을 바꿔보자는 단순한 제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루션 저널리즘이 새삼 언론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데에는 솔루션 저널리즘 확산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 ‘솔루션저널리즘네트워크(Solution Journalism Network, SJN)’의 주도적인 역할이 컸다. 설립한 지 5년여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SJN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sup>1</sup>

### 기자 대상 솔루션 저널리즘 교육

SJN은 2013년 뉴욕타임스 출신 베테랑 언론인 3명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다. ‘솔루션 저널리즘 확산’이 단체의 유일한 목표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1만 명 정도의 기자들이 SJN을 통해 솔루션 저널리즘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을 받았고, 200여 개 언론사 편집국과 솔루션 저널리즘을 실험하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미국과 해외 9개 지역에는 지사 격인 ‘솔루션 저널리즘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다. 미래의 저널리스트들에게 솔루션 저널리즘을 알리는 사업도 열심이다. 현재 17개

저널리즘 스쿨이 SJN에서 개발한 교재를 활용하고 있다.

정직원은 모두 25명이다. 재원은 100% 외부 기부금이고, 어떠한 수익 사업도 하지 않는다. 2013년 88만 달러(약 10억 원)에서 시작해 2017년 말 기준 530만 달러(약 6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빌 & 멜린다 게이츠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록펠러재단(Rockefeller Foundation), 나이트재단(Knight Foundation) 등 각종 단체 기부가 주를 이루지만, 개인 기부자들도 있다. 현재 총 40여 곳에서 지원금이 들어오며, 구글, 포인트재단, 폴리처센터 등과는 업무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SJN의 핵심 사업은 기자 교육이다. 5~20명 단위의 오프라인 교육을 본사와 지사에서 수시로 진행한다. 오프라인만으로는 수요를 다 채울 수 없어, 러닝랩(The Learning Lab)<sup>2</sup>이란 온라인 동영상 강의 플랫폼을 만들어 무료로 제공한다. 온라인 강의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6개 국어를 지원한다. 한국어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솔루션 저널리즘 기초 강의 외에도 공중보건, 공교육, 범죄예방 등 분야별 보도에 솔루션 저널리즘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다.



SJN의 핵심 사업인 기자 대상 오프라인 워크숍. 지역별로 개최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다. (출처-SJN 제공)

편집국을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 경우 오전은 교육, 오후는 실제 프로젝트 지원 형태로 진행한다. 교육을 받은 편집국은 반드시 솔루션 저널리즘을 적용한 기사를 써야 한다.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고 제공 조건이다. 그러다 보니 SJN은 지원할 언론사 선정에 무척 신중하다. 편집국 평판은 물론 인원이나 재정 상태도 고려한다. 그러나 일단 선정되면 전폭적이고 다층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SJN 전문가가 취재 계획, 전문가 섭외, 스토리텔링 방식 자문 등까지 밀착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취재경비 등의 물적 지원도 따라간다. 그 결과 SJN과 함께 솔루션 저널리즘을 경험한 언론사의 44%는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솔루션 저널리즘 기사를 생산할 정도다.

SJN은 기자들 스스로 공부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모여 솔루션 저널리즘을 이야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부분은 IT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허브(The Hub)’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기자들은 솔루션 저널리즘을 주제로 수시로 열리는 온라인 세미나(webina)에 참석할 수 있고, 솔루션 저널리즘에 관심 있는 다른 기자들을 만나 교류할 수 있다. 현재 2,000여 명의 기자 회원을 모았다.

또 다른 주요 플랫폼으로 ‘솔루션 스토리 트래커(The Solutions Story Tracker)’가 있다. 일종의 기사 아카이브인데 SJN에서 지금까지 교육을 받은 기자나 언론사가 생산한 솔루션 저널리즘 기사를 모아놓았다. 현재 791개 언론사의 기사 5,000여 건이 쌓여 있다. 솔루션 저널리즘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기자들은 이 아카이브에서 비슷한 주제의 샘플을 찾거나, 인근 지역 언론이

쓴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SJN의 커뮤니티 디렉터 사만다 맥캔(Samantha McCann)은 “SJN의 온라인 플랫폼들은 기자들이 솔루션 저널리즘 기사 쓰기를 시도할 때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솔루션 저널리즘의 기적

미국 언론계 안에서만큼은 SJN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는 듯하다. 뉴욕타임스나 시애틀타임스 같은 대형 언론은 물론, 지역의 중소 언론에서도 솔루션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시애틀타임스의 ‘에듀케이션 랩(Education Lab)<sup>3</sup>’이나 클리브랜드플레인딜러(Cleveland Plain Dealer)<sup>4</sup>의 ‘납성분 페인트 보도’ 사례는 이미 솔루션 저널리즘의 대표적 사례로 유명하다. 공통점은 문제점만을 제기하는 기존 방식에서 문제의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기사에 담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시도한 결과 독자의 관심이 크게 늘고, 현실의 문제 해결에 좀 더 다가갔다는 것이다.

덧붙여 SJN은 지역지일수록, 규모가 작은 언론일수록 솔루션 저널리즘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타임스프리프레스(Times Free Press)는 빈곤 문제를 솔루션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1년간 9회에 걸쳐 기획 시리즈로 다뤘다. 그 후 독자의 사이트 체류 시간이 300% 증가했고, 2017년에는 폴리처상 후보에도 올랐다. 오하이오주 맨스필드의 소규모 지역 신문 리처드소스(Richard Source)는 법정관리 직전 솔루션 저널리즘을 시도했고,

“  
SJN은 지역지일수록,  
규모가 작은 언론일수록 솔루션 저널리즘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오하이오주 맨스필드의  
소규모 지역 신문 리처드소스  
(Richard Source)는 법정관리 직전  
솔루션 저널리즘을 시도했고,  
보도가 반향을 일으켜  
7만 달러(약 8,000만 원)의 후원을 받아  
회생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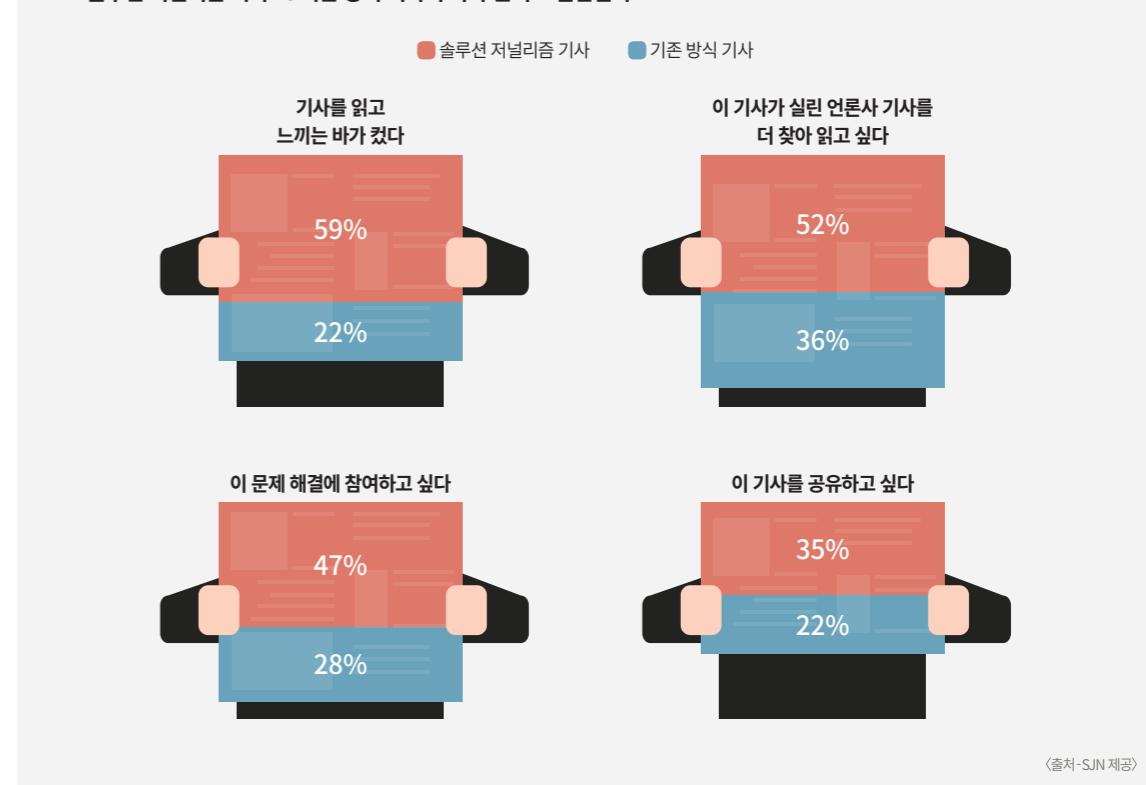
보도가 반향을 일으켜 7만 달러(약 8,000만 원)의 후원을 받아 회생했다. 프랑스의 니스-마틴(Nice-Matin)은 폐간 직전의 경영난을 겪고 있었지만 솔루션 저널리즘 실험 이후 유료 구독자가 70% 증가하고 페이지뷰는 300%, 체류시간은 400% 증가해 경영난에서 탈출했다.<sup>5</sup>

여러 성공 사례가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SJN은 “무엇보다 독자들이 솔루션 저널리즘을 좋아한다”

### 새로운 방식에 도전하라

한국 언론도 솔루션 저널리즘을 시도해볼 수 있을까? SJN의 전문가들은 “솔루션 저널리즘은 쉽다”고 주저 없이 말한다. 복잡한 방법론도 없고, 추가비용이 들거나, 디지털 부서의 협조를 받을 필요도 없다. 기사 쓰는 관점만 바꾸면 된다. 결국

그림 솔루션 저널리즘 기사 vs 기존 방식 기사의 독자 관여도 실험결과



(n=750, p<=.05.)

〈출처-SJN 제공〉

기자들의 뜻이다. 익숙한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에 도전할 용기가 필요하다. 이미 한국에도 솔루션 저널리즘에 관심을 보이는 언론사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솔루션 저널리즘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들도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한경닷컴의 ‘뉴스래빗’처럼 솔루션 저널리즘을 표방<sup>6</sup>하며 탄생한 베티컬 매체도 있다.

SJN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시애틀 타임스 ‘에듀케이션 랩’ 프로젝트에 참가해 솔루션 저널리즘을 직접 경험했던 클라우디아 로우(Claudia Rowe) 기자는 자신의 소중한 경험담을 다른 기자들에게 전한다. 그녀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시도해본 지금, 다시 과거의 기사쓰기 방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기존 기사쓰기 관행에는 중요한 부분이 빠진 느낌이 들기 때문에, 솔루션 저널리즘은 앞으로 내가

쓸 모든 기사에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기자들도 곱씹어볼 고백이다. ■

1 솔루션 저널리즘과 관련한 기존 논의는 『신문과 방송』 2016년 8월호(이지영)와 2017년 10월호(이정환)를 참조할 수 있다.

2 <https://learninglab.solutionsjournalism.org/>

3 <https://thewholestory.solutionsjournalism.org/how-seattle-times-ed-lab-is-moving-the-needle-on-education-e3cb84e8dd5c>

4 [https://www.cleveland.com/metro/index.ssf/2016/04/results\\_from\\_our\\_latest\\_reader.html](https://www.cleveland.com/metro/index.ssf/2016/04/results_from_our_latest_reader.html)

5 SJN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언론사들의 사례연구를 자세히 공개하고 있다. <https://thewholestory.solutionsjournalism.org/tagged/case-study>

6 <https://thewholestory.solutionsjournalism.org/lab-test-solutions-journalism-beats-brand-x-b9d730108155>

7 기자협회보 기사 참조.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3441>

\* 솔루션 저널리즘 네트워크 공동 설립자 티나 로젠퍼그의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 INTERVIEW

## 티나 로젠크

솔루션저널리즘네트워크 공동 설립자



“

솔루션 저널리즘은 독자를 끌어들인다.

기업들도 솔루션 저널리즘 기사를 선호한다.

솔루션 저널리즘을 도입하고 나서 기업들로부터

광고와 후원이 늘어났다는 사례도 많다.

좋은 기사로 독자에게 사랑받는다면 수익은 반드시 돌아온다.

”

뉴욕타임스 동료들과 함께 SJN을 설립한 티나 로젠크. &lt;출처-필자 제공&gt;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티나 로젠크(Tina Rosenberg)는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나카라과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천재들만 받는다는 맥아더펠로십(MacArthur Fellowship)에 선정되고, 그 상금으로 남미에 더 머무르며 저널리스트로서 시각을 넓혔다. 구소련 붕괴 이후 유럽의 실상을 다룬 책(『The Haunted Land』)으로 1996년 풀리처상을 받았다. 이후 여러 유명 매체에 글을 썼고, 최근에는 뉴욕타임스에 솔루션 저널리즘 칼럼인 ‘픽스(The Fixes)’를 연재하고 있다. 솔루션 저널리즘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오다 2013년 뉴욕타임스 동료 2명과 함께 솔루션 저널리즘 네트워크를 설립했다.

#### 기자로서 어떻게 SJN과 같은 NGO를 직접 설립하게 됐나?

뉴욕타임스 동료인 데이비드 번스타인(David Bornstein)과 솔루션 저널리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뜻이 맞았다. 그러나 새로운 단체를 시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혼자였다면 꿈도 못 꿨을 것이다. 다행히 데이비드 번스타인은 NGO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했다. 저널리즘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NGO를 만들어보려고 했고 그 결과가 SJN이다.

#### 저널리즘을 위한 펀딩을 받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역설적으로 시기가 좋았다. 언론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이제까지와 다른 접근 방식인 솔루션 저널리즘이 주목받았다. 그리고 우리 재원 중에는 꼭 저널리즘 발전을 위한 후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는 범죄 예방, 환경 보호, 노숙자 문제, 공교육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기꺼이 후원할 기관들이 많다. 이런 기관들은 저마다 관련 분야에서 열정적인 기자들이 쓰는 솔루션 저널리즘 기사가 더 많이 나오길 바란다.

#### 솔루션 저널리즘이 왜 필요한가?

무엇보다 지금 당장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야만 하는 시기다. 언론은 지금 실존적 위기에 처해 있다. 신뢰도가 바닥이다. 구독률도 하락하고 있다. 솔루션 저널리즘은 좋은 대안이다. 두 번째 이유는 독자들이 솔루션 저널리즘을 원한다. 부정적인 뉴스는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기자들에게도 필요하다. SJN과 함께했던 기자들은 솔루션 저널리즘 관점의 기사를 쓰면서 저널리즘의 기본에 더욱 충실할 수 있었고 “지금 더 행복하다”, “기자로서의 보람을 느낀다”, “전보다 일이 더 즐겁다”고 말한다.

#### 기자가 해당 분야 전문가도 아닌데, 문제 해결까지 해야 하나?

‘문제를 제기하면 누군가 해결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관점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고발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문제를

제기하면 누구든 평계를 찾아 저항한다. 반면 주변의 다른 해결 사례를 보여주면 부끄러워서라도 개선하려고 한다. 솔루션 저널리즘은 기사에 대한 반응을 좀 더 문제해결적인 방향으로 바꾼다. 기자가 전문가일 필요도 없다. 다른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기사에 넣어라.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다른 곳의 사례들을 보여줘라. 기자가 그동안 해왔던 취재나 기사쓰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면 할 수 있다.

#### 솔루션 저널리즘이 언론사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까?

솔루션 저널리즘은 독자를 끌어들인다. 높은 독자 관여도는 당연히 수익으로 연결된다. 기업들도 솔루션 저널리즘 기사를 선호한다. 더 많이 읽히고 독자 반응이 좋은 기사에 자기 기업 소식이 실리길 바란다. 솔루션 저널리즘을 도입하고 나서 기업들로부터 광고와 후원이 늘어났다는 사례도 많다. 좋은 기사로 독자에게 사랑받는다면 수익은 반드시 돌아온다.

#### 솔루션 저널리즘은 독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

문제점만 보도하면 독자는 세상을 혐오하게 될 것이다. 솔루션 저널리즘을 통해 세상에는

문제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많다는 것을 독자는 알게 된다. 신문을 더 관심 있게 읽게 되고, 사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면 무력감에서 벗어나 행동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언론은 독자 신뢰를 되찾고, 이 사회에 언론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질 수 있다.

#### 우리는 어떤 기자가 되어야 할까?

독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읽기 고통스러운 기사를 쓰면 누가 읽겠는가? 일단 독자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기사를 써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와 똑같은 비중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 앞으로 계획은?

솔루션 저널리즘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다. 이미 남미는 물론 아프리카와 유럽, 필리핀 언론사들과도 솔루션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SJN만으로는 힘에 부친다. 솔루션 저널리즘을 함께 전파하고 싶은 현지 조직들을 찾아 협력하고 싶다. ♣